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강한 농수산식품산업, 규제 개혁으로 뒷받침

대기업 양식어업 허용 등 금년도
규제개혁과제 52건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는 ①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 개발 제도개선(6건) ②협동조합 제도 개선(5건) ③농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10건) ④농자재산업 진입 규제 완화(11건) ⑤농식품 표시 인증제도 개선(5건) ⑥어업제도 합리화(15건)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에 전체 등록규제 416건 중 식품안전 등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한 101건을 발굴, 개선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개혁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전체 52개 개혁 과제의 60% 이상에 대해 상반기 중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HACCP적용 작업장 미생물 검사 담당자 무료 실습교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9년 2~3월 기간 중 본·지원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소규모 HACCP 적용 작업장의 미생물검사 수준향상과 근남 축산물에 대한 검수기술 향상을 위해 작업장 검사담당자와 육군 복지근무지원단 소속 검수관들을 대상으로 미생물검사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생물 실습교육은 최근 농장에서 식육판매단계까지 HACCP제도를 적용하여 축산물생산 전체 단계에 HACCP시스템 구축이 완료 됨에 따라 특히, 중소

규모 HACCP적용 작업장의 미생물검사 수준을 향상시켜 HACCP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무료 미생물검사 실습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축산물안전과가 2008년부터 추진중인 “찾아가는 현장지원 시스템(VTS: Visit to Support)”의 일환으로 미생물검사 실습교육을 지원 관할의 소재지별로 실시함에 따라 교육 희망업체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역원 지원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축산물HACCP제도와 업종별 HACCP평가기준 설명 등 HACCP 교육과 작업장의 위생지표세균 및 주요 식중독 유발병원균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습 대상 균종은 위생지표세균인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 등이며 주요 식중독 유발균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으로 균종별 생화학적 특성을 교육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이번 미생물검사 실습교육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축산식품HACCP 활성화와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역원은 축산물HACCP제도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번의 현장친화성 미생물검사 실습교육과 같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HACCP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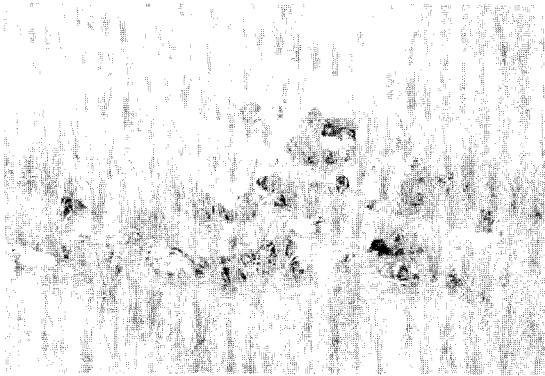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식



◎오리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유기 사료 및 오리육 가공기술 개발

유기농 논오리의 생산능력 향상을
로 농가소득 보전

국립한경대학교 낙농생명과학과 남기택 교수 연구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오리농법을 활용하여 논오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기사료 개발과 유기농쌀 생산에 이용된 논오리



의 육제품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했다. 유기농 쌀 생산에 이용되는 논오리는 집약사육되는 오리에 비하여 상품으로 출하시 체중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출하수의 부족, 출하시기의 집중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오리의 병아리 구입비용은 집약사육하는 농가에 비하여 4~5배에 달하여 농가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에서는 집약사육되는 오리에 비하여 성장능력이 낮은 논오리의 보상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오리전용 유기사료(단백질 16%, 대사에너지 2,750kcal)를 개발하였다.

한편, 연구팀에서는 논오리 고기가 신선육으로서 구이 및 탕요리로 이용되는 것 외에는 육제품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며, 오리농법에 이용된 오리의 사양관리,



가공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팀에서는 유기농 논오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식 Pecking duck, banya, 장압(醬鴨), 훈압(熏鴨) 등의 가공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팀에서는 현재 친환경 유기식품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오리농법을 이용한 유기농 쌀 생산농가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였으며, 오리농법을 이용할 경우 쌀 생산량은 평당 0.1Kg정도 줄어들지만 관행농법보다 수매단가를 25% 정도 높게 받을 수 있어 일반농가 보다 농가당 소득이 1,800,000원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과제정보】

- 과제명 :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유기오리 사료개발과 오리육 가공기술개발(2006년)
-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 한경대학교(남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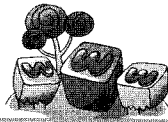
◎ 황사 발생하면 농가 손실 크다

한우 호흡기 질병 1.2배 증가, 오이 수확량 10% 감소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농·축산분야의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축 및 농작물 관리요령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의 진원지는 중국 서북부 지역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중국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몽골고원, 만주 평원에서까지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

연간 황사발생 일수는 1980년대 3.9일에서 1990년대 7.7일, 2000년 이후에는 12.4일로 그 발생량과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지



역의 월별 황사 발생횟수를 조사한 결과, 3월~5월에 85%가 발생하고 있으나 겨울철에도 황사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황사가 발생한 경우 오이는 수량이 약 10% 감소하고 애호박은 낙과율이 0.4~9.1% 증가했으며 한우의 호흡기질병 발생은 평상시보다 1.21배 증가해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2년 국무총리실 등 14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에 참여하는 한편, '황사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토양의 이화학성과 미생물, 농업기상, 식물생리, 가축위생 등 다양한 각도에서 농작물 및 가축 질병에 미치는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포집된 황사시료를 모니터링한 결과 pH 7.9, 유기물 66 g kg⁻¹, 치환성양이온 Mg 5.1, Ca 46.3, Na 6.3 cmol kg⁻¹으로 일반밭 토양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중금속 함량은 특별히 높지 않았으나, 다이옥신의 경우 0.58~13.90 pg-TEQ/g으로 일반 대기에 비해 높았으며 일라이트(illite)를 중심으로 카올린(kaolin), 클로라이트(chlorite), 스멕타이트(smectite) 등을 함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황사포집을 위해 수원을 포함한 6개 지역에 황사분진집진기를 설치했으며 미량의 황사도 포집할 수 있는 대용량채취기(High volume air

sampler)를 수원과 태안에 추가로 설치해 정확한 피해 정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농업과학원과 협조하여 황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내의 황사연구 전문인력과 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며 "농가에서는 가축 및 농작물 관리요령을 충분히 습득해 황사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가축 관리요령

-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적게 한다.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킨다.
- 밖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조,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는다.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과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하고, 방목장의 사료통과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한다.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솔로 털어낸 후에 몸체를 물로 씻어내고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기온이 낮을 때에는 보온관리에도 주의한다.
- 황사가 끝난 후 1~2주일 동안은 병든 가축의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농장주는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찰을 면·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등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문의】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박성진

전화번호 : ☎031-290-0220

